

## 선택과 집중 (7/16/2012)

불경기가 장기화되면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Slim 화 작업> 혹은 <구조조정>이다. 생산 가치가 떨어지는 사업이나 직원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경영자도 인간적으로 정말 못할 것이다. 하지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모두를 다 끌어안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갈 수는 없다. <선택>해야 한다.

이민자 여러분의 사업과 생활에는 구조조정할 대상이 없는가. 경영자들은 바쁜 직원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생산 가치가 높은 직원을 원할 뿐이다. 이민자의 소규모 사업에도 바쁘기는 누구 못지 않게 바쁘게 혼한 표현으로 영양가가 없다. 낮에는 낮이라서 바쁘고, 밤은 밤이라서 바쁘다. 일은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은데 돈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

이민 사회 사업도 온갖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만물상이 더 바쁘다. 무슨 Account 가 그렇게도 많고 상품수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두 기억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영양가 (사업가치)가 없다. 비근한 예로 한국 음식점에 가면 못만드는 음식이 없고 안되는 음식이 없다. 이해는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모처럼 오신 손님을 되돌려 보낼 수가 없다. 아니 옆 가게에 손님을 빼앗길 수 없다. 그러니 손님이 찾으시면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민 초창기에 놀란 일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함흥냉면을 엄청 좋아한다. 함흥냉면과 짜장면은 무조건 곱배기라는 공식이 내 머리에 문신처럼 박혀있다. 사실 물냉면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음식점 물냉면보다 더 맛있다. 그런데 함흥냉면은 면발이며, 홍어 끼미며, 쇠고기 편육이며, 구수한 육수 물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는게 여간 어렵기도 하고 진정한 함흥냉면 맛이 나지를 않는다. 그러던 어느날 함흥냉면 전문집이 생겼다. 얼마나 감사한지 빨리 가서 먹고 싶었는데 차일 피일 미루고 못갔다. 속으로 '저 집은 대박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년도 지나지 않아 그 함흥냉면 집이 문을 닫은 것이다. 한번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말이다. 가장 큰 이유가 이곳 한인 사회가 전문 음식점을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가족이 모처럼 외식을 나가면 각자 원하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업을 <전문화>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수요가 따라 주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너나 나나 없이 만물상이 되는 것이다. 서로가 부등켜 안고 침몰하는 과정이다.

만약 <선택>이 <전문성>으로 안된다면 <단순성>으로 검토해야 한다.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인 MIT의 존 마에다 교수는 그의 저서 <단순함의 법칙>에서 '단순함은 디지털 시대의 성공 키워드라고 한다. "Less is more!" 그의 디자인의 철학이다. 조금 모자란듯이 비워 둔 여백이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단순함은 극단적인 단순함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군더더기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스트브 잡스가 애플을 기적처럼 회생시킨 단 한가지 화두는 <우아한 단순함>이었다. 그 회심작이 '아이팟'이다. 20세기 거대한 난파선 GE를 살린 잭 웰치의 처방도 단 한 줄이다. "1등, 2등만 남기고 모든 처분하라." 1981년 그가 취임했을 때 GE는 무려 250가지 사업분야에 손을 뻗고 있었다. 매출은 70억 달러, 순익은 18억 달러였다. 그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이런 혹독한 워크아웃을 거친 후 1998년 GE 실적은 1,005억 달러 매출에 93억 달러의 순익을 창출했다. 그가 취임한지 14년만에 매출은 14배, 순익은 5배가 성장한 것이다. 물론 한인 소규모 사업체와 동격 비교는 무리다.

<오컴의 면도날 법칙>이 있다. "복잡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순함이다."가 그의 명제다. 여러개의 가설과 가정이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이론에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물론 기독교 철학이 수호해 왔던 수많은 진리와 가치들이 잘려 나갔다. 그래서 그의 이론을 <면도날 법칙>이라고 한다. 동일한 현상을 설명할 때 두개의 상반된 의견이 맞선다면 그 중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이다. 예를 들어 신학은 성경하나로 충분하며, 중세 교황들이 남긴 수많은 메세지까지 성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없애야 할 상품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의 집에도 쓰지 않는 가구며 물건들이 아마 산처럼 쌓여 있을 것이다. 아니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봐도 알 것이다. 특히 냉동실을 뒤져보면 기가 막힐 것이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바쁘기는 무진장 바쁜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별 생각이 없다. 그냥

습관처럼 바쁘게 보내는 것이다. 냉장고의 딱 찬 냉동실처럼 말이다. 골프에 미친 사람, 술에 미친 사람, 도박에 미친 사람, 드라마에 미친 사람, 음식에 미친 사람, 일에 미친 사람, 돈에 미친 사람, 감투에 미친 사람, 등등 셀 수없이 많을 것이다. ‘미치다’는 나쁜 의미만은 아니다. 미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의미다. 언젠가 차인표라는 연예인이 하던 말이 기억난다. “술에 미쳐 있을 때는 주변에 모두 술에 미친 사람들만 모여더니. 봉사 활동에 미치니까 주변에는 모두 봉사미친 사람들만 모여더라.”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도 없다. 내 사업과 내 생활에서 1 등과 2 등만 빼고 모두 없애라고 하면 무엇을 없앨까. 무엇을 <Slim>화 해서 <단순화>를 할 것인가. 그런 다음에는 그 단순해진 일과 생활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과제이며 목표가 된다면 이 불경기를 견디는 <슬기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